

실질성장 11.7% ↑ 하락세 반전, 2년 연속 성장세

총 43,989백만\$, 명목 21.6% · 실질 11.7% ↑ 2007부터 하락세 반전시켜
상위 4개사 순위 약간 변동, 신젠타 · 몬산토 ↑ 바이엘 · 바스프 ↓

-시험부-

2008년도 세계 농약시장은 전년도
다 21.6% 증가한 43,989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2004년
13.4%성장 이래 제일 높은 실적이다. 실질
성장은 11.7%로 나타났다.

농약시장은 활기찬 전 세계 농업경기와 판
매가격의 상승으로 1975년 이래 최고의 명
목성장을 이루었다. 11개 주요 선도기업들

모두 달러기준으로 10% 이상 성과를 달성
하였다. 재배면적이 증가된 중남미와 유럽
이 성장을 견인하였다.

높아진 물가로 인하여 모든 작물에서 특히
곡류, 두류, 유류작물, 과수 및 채소에서 증
가 하였다.

2008년 세계 농약시장은 21.6% 증가하였
으며, 1975년 이래 최고 연평균 성장률을 보

2003이후 세계 농약시장 변화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목 시장매출액(백만\$)	28,515	32,349	32,867	32,162	36,183	43,989
전년도 시장매출액(백만\$)	26,561	28,515	32,349	32,867	32,162	36,183
명목성장률	+7.4	+13.4	+1.6	-2.1	+12.5%	+21.6%
무역 가중 인플레이션	+4.1	+3.6	+3.3	+2.9	+3.2%	+5.4%
무역 가중 환율영향 ¹	+5.9	+4.5	+3.5	+1.6	+5.0%	+3.3%
실질성장률 ²	-2.6	+4.9	-5.0	-6.4	+3.8%	+11.7%
실질시장가치(백만\$) ³	40,703	42,652	40,532	37,938	39,388	43,989

1 : 달러 강세 시 negative 2 : 명목성장/(인플레이션 × 환율) 3 : 2008 달러 기준

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영향으로 상쇄되어 실질성장률은 11.7%를 나타냈다. 업계는 2007년부터 그 동안의 하락세를 반전시키며 2년 연속 성장을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성장한 해는 3개년(2004, 2007, 2008)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2008년은 시장이 8.1% 성장하여 2003년보다는 커졌지만, 1998년에 대비하면 6.6% 줄어든 것이다.

세계 농약시장은 1970년대 이후로 상승하여 1990년대 중반에 최고점을 이루었다. 1996년 전 세계 농약매출은 \$32,350백만 달러(2008년 기준 47,515백만 달러)였다. 하지만, 이후 여러 가지 요소가 시장을 침체기로 들어서게 했다.

농산물 가격은 잉여농산물 재고가 창고에 쌓이면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GMO 작물이 재배되면서 몇몇 분야의 살충제와 제초제의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 밖에도 취약한 농업경영체, 반복된 경제위기, 기상조건의 악화, 제네릭 제품과의 경쟁 등이 위축을 유도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세계 농업 경기는 바이오연료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되면서도 식량 및 사료 가격이 상승되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또 석유가격의 급등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고, 이로 인한 물가상승이 매출액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실질 성장은 지난 10년간은 -0.7%,

2008 회사별 농약매출

회 사	2007		증 감		2008	
	현지화 (백만)	달러화 (백만)	현지화	달러화	현지화 (백만)	달러화 (백만)
신젠타	\$7,285	\$7,285	26.7%	26.7%	\$9,231	\$9,231
바이엘크롭사이언스	*5,444	\$7,451	8.9%	16.4%	*5,930	\$8,675
몬산토	\$3,583	\$3,583	39.5%	39.5%	\$4,998	\$4,998
바스프	*3,137	\$4,294	8.7%	16.1%	*3,409	\$4,987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3,439	\$3,439	18.3%	18.3%	\$4,067	\$4,067
듀폰	\$2,367	\$2,367	10.6%	10.6%	\$2,617	\$2,617
막테삼-아간	\$1,879	\$1,879	24.3%	24.3%	\$2,335	\$2,335
뉴팜	A\$2,180	\$1,825	25.6%	25.4%	A\$2,737	\$2,288
스미토모 화학	¥146,969	\$1,248	-3.1%	10.4%	¥142,449	\$1,378
아리스타라이프사이언스	¥121,962	\$1,036	-0.9%	12.9%	¥120,892	\$1,169
에프엠씨	\$890	\$890	19.0%	19.0%	\$1,059	\$1,059

(*단위: 유로)

1998-2008 농약시장 변화

	1998-2008 (10년)	2003-2008 (5년)	2007-2008 (1년)
명목성장률	+3.6	+9.1	+21.6
실질성장률	-0.7	-1.6	+11.7

지난 5년간은 +1.6%를 보였다.

물가상승과 환율을 포함하여, 2008년 농약시장을 성장시킨 주요 요인으로는 경작지 증가, 높은 농산물가격, 기후조건, 바이오연료의 수요증가, 신규시장의 급속한 성장, 판매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다.

지난해의 달러화 약세는 미국의 시장의 가치를 크게 상승시켰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4/4분기에 시작되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여 이러한 영향이 누그러졌지만, 이로 인하여 농약시장이 크게 감소되었다. 금융위기로 인해 농가 구매력의 약화, 전 세계적인 식량 수요 감소, 농산물 가격의 하락 및 바이오연료의 성장이 둔화되었다.

세계 주요 선도기업 분석

농약산업의 11개 선두기업들은 2008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농약시장은 높아진 가격과 수요가 증가되어 호황을 이루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은 원자재 값 상승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달러기준으로는 11개 모든 회사가, 현지통화 기준으로 2개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성장하였다. 달러기준 매출증가 폭의 차이는

최대 +39.5%(몬산토)에서 최소 +10.4%(스미토모 화학)까지 나타났다.

대다수의 기업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기업인수와 합병이 일부 회사의 매출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인수합병 시장의 강자는 뉴팜(Nufarm)으로, 지난해에는 AH Marks사와 Etrigra사, 2007년 중반 브라질의 Agripec사를 합병함으로써 큰 이익을 보았다.

막테심-아간(Makhteshim-Agan)은 Rokita Agro사와 Magan Yu사를 인수함으로써 동유럽 시장을 확대하였고, 아리스타 라이프사이언스(Arysta LifeScience)는 멕시코에서 Grupo Bioquimico Mexicano사를 인수하고 남아프리카 Volcano사 주식의 50%를 소유하면서 급성장하였다. 바스프(BASF)는 지난 연말에 Sorex professional pest management business사를 인수하였다.

상위 4개의 회사 순위가 약간 변동이 있었다. 우선 신젠타가 바이엘이 아벤티스와 합병한 2002년 이래 처음으로 정상의 자리에 다시 올라섰다. 바이엘은 2위를 차지했고, 글리포세이트 판매의 가파른 상승으로 몬산토가 3위를 차지하였다. 바스프는 3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으며 나머지 7개 회사는 작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였다.

■ 신젠타(Syngenta)

뛰어난 판매실적을 보이면서 1위를 차지

했다. 뿐만 아니라 2위 바이엘과의 격차도 5.5억달러로 벌려놓았다. 이는 신젠타 제품의 핵심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 glyphosate, azoxystrobin, thiamethoxam과 같은 일명 '블록버스터 제품' 들의 판매 호조에 큰 힘을 받았다.

■ 바이엘(Bayer)

역시 2008년에 살균제 분야를 필두로 뛰어난 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제초제와 종자처리제가 자사 매출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서 1위에서 2위로 순위를 바꾸고 말았다.

■ 몬산토(Monsanto)

2006년에 5위에 머물렀으나 전 세계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글리포세이트 가격과 수요를 통해 3위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현재 글리포세이트의 가격은 상당부분 떨어져 2009년에는 3위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바스프(BASF)

매출이 1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4위를 차지하였다. 제초제와 살충제 분야가 부진했지만, 살균제가 유럽과 중남미 시장에서 매우 뛰어난 성장을 이룩했다.

■ 다우(Dow)

곡물 생산 증가에 따른 제초제 판매 상승과 pyroxsulam, penoxsulam, aminopyralid 같은 신제품의 선전에 힘입어 사업 전체가 골고루 성장하였다.

■ 듀폰(DuPont)

2003년 이래로 성장하며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부진한 매출을 보였다. 글리포세이트의 높아진 가격과 혼합제의 사용 덕분에 매출은 늘었고, sulfonylurea계통 약제 판매가 약간 늘었다.

■ 막테심(Makhtashim)

작년 말에 중소기업 두개를 인수 했으며 자연적으로 평균이상의 성장을 또다시 달성하게 되었다. 유럽과 남미에서 제초제 판매를 통하여 성장을 이루었다.

■ 뉴팜(Nufarm)

기업인수로 매출이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호주 기후조건과, 글리포세이트, phenoxy계 제초제의 강력한 수요도 영향을 미치는데 한 몫을 하였다.

■ 스미토모(Sumitomo)

11개 기업 중에서 가장 실적이 부진했다. 일본 내에서 실적이 더욱 좋지 않았다.

■ 아리스타(Arysta)

스미토모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마진이 적은 아시아의 중계무역에서 철수를 지속하였고 이와 동시에 몇몇 제품이 취하되면서 Arysta 매출은 감소하였다.

■ 에프엠씨(FMC)

6년 연속 매출성장을 이루었다. 원제개발보다 제3국 원제의 특허를 취하는 것으로 회사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2008년에는 남미와 아시아에서 주로 성장을 이루었다. Y